

학고한 研究발전 意慾으로  
기술개발 革新에 매진해야



閔 寛 植

科總 명예회장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오늘 제25회 「科學의 날」을 맞이하여 국사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왕립하여 주신 鄭元植國務總理를 비롯한 과학기술계 원로, 선배,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가 담긴 이곳

홍릉 韓國科學技術研究院에서 뜻깊은 기념식을 갖게 된것을 매우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光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半世紀를 지나는 동안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혼난한 길을 걸어오면서도 우리의 산업과 과학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이를 근저로 해서 경제는 물론 정치와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루게 된데에는 여기 모이신 과학기술인 모두의 숭고한 헌신과 봉사정신이 초석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실과 강단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지식의 탐구와 연구개발에 정진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볼 때 지금부터 4반세기전인 1966년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창립된 이후

1967년 科學技術處가 발족되고 이어 그 이듬해인 1968년에 과학기술의 창달과 진흥을 통하여만 국가발전과 인류복지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열망에 부응하여 정부가 「科學의 날」을 제정한 이래 科學의 날에는 해마다 각종 기념행사와 함께 科學技術賞을 시상하고 有功者를 포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을 격려해 오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금 세계는 理念的인 東·西관계가 와해되고 각국은 모든 국제관계를 자국산업경제의 사활적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력을 우위확보하는 데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최근 우리의 과학기술력과 산업의 대외경쟁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습니다만 기술개발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가 自力으로 연구개발하기 보다는 해외 의존적 선진기술의 모방과 제한적인 기술여건에 자족해 온 결과도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스스로 평가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결국 앞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기술개발과 수출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最優先의인 과학기술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科學技術處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혼연일체가 되어 과학기술만이 국가발전을 약속한다는 신념으로 國家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을 기초로 한 「科學技術革新綜合對策」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G7 先進國進入」이라는 목표아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 100만 과학기술인은 우리의 살길이 오직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사회발전이라는 大命題를 재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의 신조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역사발전의 구심체라는 소명을 되새기면서 제25회 科學의 날을 맞이하는 의의를 찾고자 합니다.

뜻깊은 오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숭고한 科學者像이 정립되고 모든 국민의 의식속에 창조와 능률 그리고 합리의 정신이 심어짐은 물론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이 함께 대우받는 소망스런 풍토가 이땅에 이룩되기를 다같이 축원하면서 정부당국에서는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좀 더 확고한 연구의욕을 갖고 기술개발과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반 분위기와 풍토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韓國과학기술의 오늘이 있기까지 象牙塔과 연구개발의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고를 다해오신 원로·선배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과학기술처를 비롯한 정부당국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영예의 大韓民國科學技術賞과 有功褒賞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